

그리스도왕 대축일

기도서 482면 (B해)

제1독서: 다니 7, 13-14

제2독서: 묵시 1, 5-8

복음: 요한 18, 33b-37

숲정이

“아름든 네가 왕이냐?” 하고 빌라도가 묻자 예수께서는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왔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하고 대답 하셨다”
(요한 18, 37).

강론

하느님 나라의 왕

인후동 성당 / 서용복 신부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선지자만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어린양이요 대사제만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느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모든 천국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읍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의 왕이 되시는가?

첫째는 예수께서는 천국을 세우시고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큰 권세를 가지시고 하느님 나라 건설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리스도는 하느님 나라의 보이는 부분이 되는 이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디든지 하느님 나라가 미치는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건설될 때에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께서는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까지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인간의 역사까지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벌할 자를 벌하시기도 하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선택한 자를 불러 구원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째는 예수께서는 천국을 완성하시고 이 천국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되십니다. “모든 군주의 군주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신 어린양이 이기실 것이며”(묵시록 17, 14)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비록 세상에 오실 때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촌락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시고 세상에 잠깐동안 계시 때에 갖은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소리

그 더러운 공화국의 범죄에 이제 신물이 난다.

지방지는 지방지대로 중앙지는 중앙지대로 새록새록 터져 나오는 5공시절의 새 레퍼토리를 보면서 대통령일가가 어떻고 무슨무슨 협회가 어떻고 일해재단이 어떻고 하다못해 중고차 중개업 등 세상에 이권걸린 구석이 이렇게도 많은가 놀라울 뿐이다.

소인은 한가하면 죄를 짓는다는데 요즘 신문에 매일 올려지는 서술 시퍼렇던 사람들의 얘기를 읽다보면 과연 사람은 남의 눈만 피한다면 무슨짓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있는 듯하다.

더구나 언론계를 한목소리로(?) 만들어 놓았다는 자칭 장본인 허문도씨, 국정감사 중인석상에서 전두환씨를 난세를 치세로 바꾼 영웅이라 떠들어서 이른바 「소인 발언」을 보곤 국민들은 TV코메디 프로 순악질 여사의 야구 방망이를 연상했으리라.

80년초 광주학살과 더불어 피비린내 나는 총칼 앞에서 자행됐던 언론통폐합, 한마디로 「언론계 작살내기 작전」이라고 해야 마땅할 언론탄압 회오리에 대해 다름아닌 언론계가 언제 그렇게 분노하고, 문제를 파헤치려고 벌렸던 일이 있느냐 할 정도로 후끈 달아올라 있는 것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언론기업들은 국민의 알권리와 독재에 저항하는 기자들을 외면해 버리는 가해자는 아니었다. 권력자를 위해 재벌을 위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표피에 분칠을 하고 얼마나 많은 허위허식을 강요했는가. 정치적 한파가 몰아치면 움츠러들고 햇볕이 나면 자유언론의 기수인양 기골 장대하여 설쳐대는 해바라기 속성을 지닌 언론사는 이번 기회에 철저한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우리 언론은 어쩌면 영웅할기 시대의 霸王과 같고, 약육강식시대의 공룡과 같다면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나 언론의 공공성보다는 私기능이 지난날 강했다는 비난이 일기 때문이다.

숲정이 산책



“王 中 王”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는 부족하나마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공자는 천을 의지로 갖고 만물을 주재하는 인격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였으며 천에 대한 경건과 天命에 대한 순응은 그의 삶과 사상 전체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사랑하는 제자 안연(顔淵)이 죽었을 때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論語」先進 8) 하며 슬피 탄식하면서도 천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응 하였으며, 심한 좌절 속에도 “나를 알아줄 분은 저 하늘 뿐이구나.”(「論語」憲問37)라고 하면서 천에 대한 굳은 신뢰를 고백하였다. 또한 자신은 50세에 天命을 알았다고 하면서 군자(君子)는 무엇보다도 天命을 두려워하고 받들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이 천이야말로 만군, 만물의 참 주인이시며 인간 만사의 주재자임을 가르쳤다. 환퇴가 그를 죽이려 할 때 “하늘이 나에게 덕을 풍부케 주셨는데 환퇴 네가 나를 어찌하겠느냐?”(「論語」述而 22)라고 하며 하늘의 허락없이는 누구도 자신

을 어찌할 수 없음을 굳게 믿었다. 이러한 천에 대한 사상이 그대로 우리 한국 초기교회를 지배한다. 초기 한국교회의 지도자였던 성 정하상(바오로)은 그의 상재상서(上宰相書)에서 만물의 주재자가 있음은 누구나 알 수 있으며 옛 성현들도 만물의 주재자인 천을 받들어 섬겼음을 역설하면서 “천주는 만물의 대부모(大父母)요 대주재(大主宰)이므로 옛 성현들도 극진히 섬겼는데 지금 사람들은 무슨 까닭에 모욕하고 능욕하는가?” 하며 천주 공경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렇다. 우리 인간의 주인이요, 참 왕은 하느님 한 분 뿐이다. 그리고 바로 그 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부른다.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로써 왕중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날이다. 나의 王은 과연 누구이며 무엇인가? 나의 사상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깊이 반성하며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보자.



성서와 함께

27. 성서시대의 역사(I) : 귀양

시편 137장은 바빌론 대제국의 수도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망향의 서러움을 잘 그리고 있다. “바빌론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젖노라.”

그러나 처음의 정신적 충격이 사라지면서 유대 포로들은 점차 안정을 찾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나갔다. 더구나 포로들은 백성의 지도층 인사들로서 모두가 지성과 재능을 갖춘 엘리트들이었다. 그래서 개중에는 오래지 않아 바빌론 사회에서 상당한 재산과 신분을 향유할 수 있었다 (예레 29장 참조).

포로민들은 같은 처지의 방랑인들 무리와 결혼하여 나중에 귀환하는 동족들이 경멸조로 부른 “그 땅의 백성들”이 되었다. 여하튼 바빌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신분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

한편 바빌론 대제국은 처음에 메데스왕국과 “비옥한 초생달”을 함께 차지하고 있었고, 소아시아에는 리디아 왕국이 자리잡고 있었다. BC 550년 메데스 왕국에 조공을 바치던 페르샤 소왕국의 통치자 고레스가 자기 상전 메데스왕 아스티아게스를 꺾고 그의 왕국을 차지하였다. 고레스는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군해 들어갔고 리디아도 굴복시켰다. 이쯤되자 왕위 계승분쟁으로 허약해진 바빌론 제국은 싸우지도 않고 그 광대한 영토를 고레스에게 넘겨 주었다.

마침내 고레스는 539년 수도 바빌론에 입성하여 거대한

제국의 대왕으로 군림하였다.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였다. 그는 현명한 식민지 통치자로서 자기에게 충실한 민족들에겐 후의를 베풀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팔복할만한 활동을 벌인 예언자들로서 들을 꼽을 수 있다. 예제키엘과 이사 40-55장을 기록한 이름모를 예언자이다. 둘 다 망국의 한에 시름하고 있는 유대 포로민들에게 격려와 희망의 소식을 전했다.

귀양시절은 문필활동이 찬란히 꽃피었던 시절이다. 새로운 법전이 출간되어 나왔고 옛 문헌들이 수정·보완되었다. 이 시기에 편집활동을 벌였던 문필가들은 주로 사제계급 출신들이었다.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들의 사제적 열정이 귀향도상에 선 유대 포로민들을 규합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귀양시절 중 또 하나 특기할만한 사실은 이 시기에 유대교의 회당이 생겨 났다는 것이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희망도 없이 멀리 떨어져 있었고 고국의 하늘 밑 일망정 포로민들의 종교적 열정은 안식일 예배를 거르는 일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의 나라 땅에서 대중 집회를 위해 성전 역할을 대신해 줄 회당을 건축하였다. 이것이 이방인 지역에 산재한 유대 시나고가의 원조가 된 것이다.

특약점장 및 판매사원 모집

1. 취급품목 : 해태우유, 새코미, 쿠파스, 스쿨
2. 모집지역 : 특약점장 - 전주, 이리, 임실
판매사원 - 전북지역 ○○명
3. 문의처 : 전주시 금암동 768 - 7
☎ 76-9660, 75-1086

해태유업(주) 전주지점

“발표력을 기릅니다. 응변을 배웁시다”

'89.유치부 원아모집. 방학특강반모집

- 호남응변종합학원 (구.서중로터리) ☎ 3-3284
- 새호남응변종합학원 (전주역 앞) ☎ 4-3948
- 호지응변종합학원 (호지캠프 APT 옆) ☎ 83-8331~2

원장 유 병철 (베드로) · 원감 박 경애 (안젤라)

교 구 소 식

1. 사제총회 : 22일(화) 오전10시30분 장소-가톨릭 센터
2. 혼인강좌 : 27일(일) 오전9시30분 참가비-5,000원 장소-가톨릭 센터
3. 교구성소자 모임 : 27일(일) 오후2시 장소-가톨릭 센터
4. 대학생 연합회 정기총회 : 26일(토) 오후2시 가톨릭 센터
5. 11월중 은혜의 밤 철야 기도회 : 25일(금) 밤11시부터 강사-한봉섭 신부
6. 주소변경 안내 : 나춘성 신부님
302-190 대전시 서구 변동 56-11 미성연립주택 가동 201호
7. 7지구(김제) 사목연수 : 25일(금) 오후7시 30분
8. 꾸르실료교구 총회 : 오늘 오후2시 가톨릭센터
참석자-각 본당 울뜨레야 간사·88교육 봉사자·교구 사무국 임원
9. 가톨릭 문우회 모임 : 전주교구신자 문인들의 모임을 결성코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연락 바랍니다.
연락처-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홍보국장 권이복 신부 전화 85-0041~3

※ 축! 영명 성플레멘스(23일) : 윤양호 신부님 축하합니다.

- 시복 시성 청원 및 약전(略傳) 문서 완료
- 치명자산 개발 지역 채벌(採伐) 완료
- ※ 치명자산 금요미사 : 10시30분(십자가의 길-9시30분) 미사후 고백성사 있습니다.

요심이 (798)



잠깐!

전동 방화범! 못 잡는가? 안 잡는가?

우린 지난 10월 10일 "전동 성당에 불이 났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은 듯한 충격에서 한참이나 헤어날지 못했다. 더우기 그 화재가 '전기 누전'이라는 애초의 보도와는 달리 누군가의 방화일 것이라는 근거들이 하나 둘 씩 들추어짐에 따라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차라리 단순히 '전기 누전'에 의한 실화였다면 마음이나 빨리 평정을 찾을 수있으련만 불이나자 성당 밖으로 황급히 떠나가는 점버차림의 스포츠형 머리를 한 4명의 젊은이들을 보았다는 성심여고 선생님과 학생들의 증언, 발화지점이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였다는 증언들은 어떤 분노와 한탄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다. 세상에! 정말 이럴수가 있는가! 이는 비단 우리 신자들만의 소리가 아닌 온 시민들의 소리이다.

우리는 꼭 찾아내야 한다. 어떤 댓가를 치루고라도 찾아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애타는 마음과는 아랑곳 없이 경찰은 허울좋은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현재로써 유일한 단서는 '4명의 스포츠형 머리의 젊은이' 일진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예 조사조차 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린 묻고 싶다! 당국은 범인을 못 잡는가? 안 잡는가? 언제까지 이려고만 있을 작정인가? 그리고 우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를 막론한 10만 신도들에게 묻는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우리 교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 버렸는가! 10만 전주교구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 모두 다시 뭉치자! 제2, 제3의 성전에 불같이 솟기전에.....

정신과학세미나

- 주제 : 고도의 정신 및 두뇌 활용법
- 효과 : 스트레스해소, 기억법, 집중력, 신앙심화, 수면조절법
- 일시 : 11월 22일(화), 11월 25일(금) 오후2시·7시
- 장소 : 군산시 신세계예식장 (군산시청 옆)
- 참가비 : 1,000원 ☎ 3-0881

원장 박은성 (요한)

사무장채용공고

1. 제출서류 : 이력서, 본당신부 추천서 (당30세이상 40세미만에 한함)
2. 제출기한 : 11월 27일(주일) 오전
3. 면담 : 11월 27일(주일) 오후2시 본당사무실

덕진 천주교회 시목회

고도의 기술, 선명한 색상재현
25분 완성

전북칼라현상소

대표 오희웅(임부르시오)
전주시 교사동1가 연금매점 남쪽 (오거리) ☎ 83-3335 5335

장미성치과의원

원장 장미성(유리이나)
효자동 우진APT 앞 ☎ 84-9200

직원채용공고

1. 모집부서 및 자격 : ① 어지-0명 ② 지각-민18세이상 20세이하, 고졸이상 졸업자(주산2급, 부기3급, 타지3급이상 자격 소지자), 전주 시내 거주자
2. 제출서류 : ① 자필이력서(1통 (인명일관 사진2매) ② 주민등록등본(1통)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1통) ④ 자격증원본 및 사본(1통씩)
3. 접수마감 : 88.11.30 17:00시까지
4.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5. 면접일자 : 88.12.3 15:00
6. 접수처 : 본조합 총무과
7. 문의사항 : 전화 85-2570, 2670, 2507으로 문의바람

노송신용협동조합이사장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중앙

사제관 77-1713 주임신부 **성민호**
 사무실 77-1711 보좌신부 **김진록**
 수·유 77-1712 사목회장 **황의옥**

-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 ※ 신설본당을 위한 2차헌금실시: 다음주일
- ※ 반미사: 23일 오후8시 8만-
- 1. 제대미화 공사 감사미사및 제단축성식: 주교님 집전 25일(금) 어머니미사중
- 2. 죽은 레지오 단원들을 위한미사: 다음주일 공식미사후
- 3. 유아세례: 25일(금) 오전10시 대부·모님 꼭 참석하세요.
- 4. 모임: 꾸리아-오늘 오후2시 성체회-25일(금) 어머니미사후 재축성회-다음주일(27일) 오후2시
- 5. 공식미사: 다음주일
- 6. 88년 레지오 마리아에 연찬친목회: 12월 3, 오후1시
- 지난주봉헌금: 1,275,070원 □ 교무금: 932,000원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76-0961 사목회장 **소완영**
 수녀원 76-0961

- ※ 신설본당을 위한 신축헌금: 오늘미사중 실시
- 1. 오늘은 선교주간: 꾸리아회의-오후2시
- 2. 차주는 애령주간: 선령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 3. 금요일: 오늘 공식미사후 4. 금성회: 27일 5. 금암회: 29일 저녁 6. 안나회 모니카회 월례회: 25일 오전10시(저녁미사 없음)
- 7. 유아세례: 25일 오전10시미사(대상자는 사무실에 신청)
- 8. 가정방문: 수(36만) 목(37만) 금(38만)
- 9. 신자들반대회: 27일 공식미사후 출발 장소-오봉산 회비5,000원 10. 통신교리 수료자 원장 수녀님께 연락요망
- 11. 금주전례: 해설-김중구 봉헌-한천수 부부 복사-최계호 서법석 기도-17만, 18만, 19만
- 12. 차주전례: 해설-박영근 봉헌-김효연 부부 복사-김명수 박영섭 기도-20만, 21만, 22만
- 13. 미사안내: 신비로운 장미Pr 차주-바다의 별Pr
- 지난주봉헌금: 184,610(98명) 공식378,850원(414명) 저녁141,200(202명) 합계754,000원 □ 교무금: 724,000원

*덕진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성태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양상렬**
 수·유 72-1222

- 1. 오늘부터 성서주간이 시작됩니다. 칫미사, 중·고생미사, 공식미사후에 신앙서적 판매합니다.
- 2. 성모회: 공식미사후(2층 회의실)
- 3. 연도대회: 오늘 오후2시30분부터 식당에서, 각Pr단원들은 모두 참석하세요. 4. 전례분과 모임: 23일(수) 오후8시
- 5. 11월 청년들 만남의 날: 25일(금) 오후7시
- 6. 손님 신부님 초청 고백 행사: 26일(토) 저녁미사후
- 7.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장님 교무청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 사무장님 27일 오후2시 면접
- 8. 금주 가정방문: 덕진8만, 9만
- 9. 금주전례: 해설-민운식 복사·독서-메드로회 기도-덕진4만 차주전례: 해설-정석의 복사·독서-선교분과 기도-덕진5만
- 10. 금주본당 청소: 로사리오의 모후Pr-26일 오후1시30분
- 지난주봉헌금: 739,070원 □ 교무금: 963,000원
- 평신도 주일금: 298,720원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소순형**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영철**
 수녀원 77-4212

- 1. 다음주일은 대림1주일입니다.(B해가 끝나고 C해가 시작됩니다.)
- 2. 가정방문 일정: 22일-동산8구역 23~24일-동산2구역 25일-판복1구역
- 3. 구역미사: 모임-미사(22일) 동산2구역, 나눔찬치(23일) 동산5구역, 모임(25일) 판복3구역
- 4. 모임: 오늘 공식미사후-글라라회 총회, 모이세회, 구역장회, 사목회 차주공식미사후-애덕회, 청년연합회
- 5. 축! 결혼: 오늘12시 신랑-김학(요셉) 신부-김진모
- 6. 금주청소: 평화의 모후 차주-죄인의 의탁
- 7. 금주전례: 해설-한기철 독서(1)강윤준 (2)신문자 차주전례: 해설-안기섭 독서(1)최연조 (2)전점순
- 지난주봉헌금: 317,760원 □ 교무금: 250,000원
- 2차헌금: 119,520원

*서신동

사제관 4-2214 주임신부 **박성팔**
 사무실 사목회장 **박병열**

- ※ 벽돌 헌금 함: 우리들의 정성어린 벽돌 한장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룬 것입니다.
- ※ 첫길귀 판매: 성전 신축을 위한 각종 첫길귀를 판매 합니다.
- ※ 다음주일은 대림절 시기입니다. 한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 1. 금주모임: 꾸리아-공식미사후 차주모임: 방주회-공식미사후
- 2. 가정방문: 24일(목), 25일(금) 오후-2시부터
- 3. 신년도 사업계획: 26일(토)까지 사무실에 제출 바랍니다.
- 금주본당청소 안내: 평화의 모후 차주-매괴의 모후
- 금주미사안내: 매괴의 모후, 흥보 차주-사랑하을 모후, 청소년 금주미사전례: 해설-선종현 독서(1)유준용 (2)윤덕남 차주미사전례: 해설-선종현 독서(1)신천우 (2)권정신
- 지난주봉헌금: 247,100원 □ 교무금: 620,000원
- 평신도특별헌금: 93,970원

*송천동

사제관 74-1004 주임신부 **김태윤**
 사무실 사목회장 **소병을**
 수녀원 4-1142

- ※ 사목회 임원및 지도자 연수회 잘마쳤습니다. 수고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1. 벨엘 성령세미나: 21~25일까지 참가비3,000원
- 2. 본당공사 마무리 및 미산구역(공소)집 재건비를 위하여 신임을 받습니다. 신축잔금-490만 미산(공소)집-350만 수녀원 담장 공사-250만 합계1,090만원예산
- 3. 오늘의 모임: 꾸리아, 울트라아-공식미사후
- 4. 제대회: 25일 오후2시
- 5. 셋째주일은 교무금 봉헌주일: 미납된 교무금 납부합니다.
- 6. 다음주일은 나눔의 날
- 7. 금주본당 청소: 송천7구역 26일 오전11시
- 8. 금주전례: 해설-박세영 독서·기도-여성분과 차주전례: 해설-김혜숙 독서·기도-애령분과
- 지난주봉헌금: 360,110원 □ 교무금: 379,000원
- 평신도 주일 2차헌금: 95,670원

*숲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이규철**
 수녀원 3-9567

- ※ 오늘은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88 신설본당을 위한 2차헌금 실시) 1. 오늘 모임: 꾸리아 12사도회
- 2. 소독통 방문: 21일(월) 전신자 대상 참가비-만원(도시락제공)
- 3. 예비자 교리 12월반 시작합니다(주일반): 12월 4일 오전9시
- 4. 교육국 사목방문: 25일(금) 오후7시30분
- 5. 26일(토): 제대회(오전10시) 유아세례 병자방문
- 6. 금주가정방문: 동양아파트(22일) 진북2동4구(24일) 진북2동3구(26일) 7. 다음주: 대림1주일(다해) 모임-요한회
- 8. 교무금 납부가 부진합니다. 교무금 납부에 성의를 다하십시오.
- 9. 금주본당청소: 화-평화의 모후 토-인자하신 모후
- 10. 미사해설: 강두호 11. 미사안내: 하늘의 문
- 12. 금주전례: 독서·기도-최종수 조연숙 봉헌·기도-조문영 이순남 차주전례: 독서·기도-박종윤 고영숙 봉헌·기도-김창현 민복순
- 지난주봉헌금: 375,690원 □ 교무금: 419,000원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86-5022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3-9236

- 1. 안나회 월례회의: 20일 공식미사후
- 2. 판공심사 섬김일기: 에페소서 1장~6장
- 3. 온풍기 은인을 구합니다.
- 4. 내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정성을 다하십시오.
- 5. 자모회 월례회의: 24일 어머니 미사후
- 6. 성전신축을 위한 2차헌금은 5천만원 부채 청산때까지 합니다.
- 7. 성가연습: 매주 금요일(10시)베소라 성서 모임후에
- 8. 꾸리아 월례회의: 27일 오후2시 품손피아노 학원
- 9. 통신교리 수강자: 원장 수녀님과 면담 요망
- 10. 다음주는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 제1주일입니다.
- 11.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십시오.(생미사, 연미사, 가정미사)
- 지난주봉헌금: 721,010원
- 성전신축을 위한 2차헌금: 140,000원